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1972년 초기 논문이다. 대략 789~793쪽이고, 부록 번호는 확인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Synapse* II, 1(1972년 1월)에 실렸고, 「가디언」(1979년 1월, 10-11쪽)에 다시 실렸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성경의 권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답은 “예수님 때문”이다. 다만 흔히 쓰는 논증, 곧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하셨으니 우리도 믿는다”를 펴려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따로 있다. 성경의 권위가 없으면 “예수는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고백 자체가 뜻을 잃는다는 것이다. 먼저 그는 '주'라는 말에 담긴 절대적 요구를 풀고, 이어 '구세주'라는 말에 담긴 확실한 용서의 약속을 푼다. 그다음 이렇게 묻는다. 그런 절대적 요구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개인적 계시로는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성을 '기록된 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권위 있는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의 주되심도 구원도 붙들 수 없다. 프레임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까지 이끌어 낸다.

📜 절별 정리

📜 0. 들어가며: 왜 성경의 권위가 중요한가

프레임은 이 짧은 글이 자신이 성경론을 처음 정리한 시도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다. 성경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 글이고, 본문의 30장을 보충한다. 그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영감되고, 불오하고, 무오한 성경을 믿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답은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이다. 흔한 논증은 이렇다. 예수님이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신약의 권위도 미리 인정하셨다. 프레임은 이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이 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백이 무슨 뜻인가”를 따라가는 논증이다.

1. 이 글은 1972년의 초기 글이고 30장을 보충한다
2. 질문: 무오한 성경을 왜 꼭 믿어야 하나
3. 답: 예수님 때문이다
4. 흔한 논증(예수의 성경관)은 옳지만 다른 길로 간다
5. 성경 권위가 없으면 '주·구세주' 고백이 무의미하다

> **마태복음 5:17-19**
>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 구약 권위를 인정하신 예('흔한 논증'의 근거)
>
>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 **요한복음 5:45-47**
>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도 믿지 못한다. 구약과 예수님이 함께 묶인다
>
>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 **요한복음 10:33-36**
>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10:35). 구약 권위를 인정하신 예
>
>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26

성령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신약 권위를 미리 인정하신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26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같은 역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13

성령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같은 역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 1.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시다. 거꾸로 하나님은 종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 프레임은 이 요구가 세 가지 의미에서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첫째, 이의를 달 수 없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렸다면 그것은

요구하시고 받으신다. 셋째,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먹고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가 닿지 않는 영역은 없다.

1.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곧 나는 종이라는 고백이다
2. 종은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가 없다
3. 하나님의 요구는 이의를 달 수 없다
4.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충성보다 앞선다
5. 하나님의 요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 **시편 24:1**
>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
>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 **에베소서 1:11**
>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통제' (원문 OCR의 '7901:11'을 바로잡음)
>
>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 **신명기 10:14-17**
>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주님
>
> 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로마서 4:20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았다. 이의를 달지 않는 믿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세기 22:18

이삭 사건 뒤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의 없는 순종의 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신명기 6:5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독점적 충성 (번역서 표기는 6:6, 내용상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

예수님이 같은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확인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6:24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경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번역서 표기는 6:22, 내용상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8:19-22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37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같은 역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9:16-30

부자 청년과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 같은 역할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빌립보서 3:8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충성을 받은 사람의 고백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23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중립 영역은 없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린도후서 10:5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생각의 영역까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골로새서 3:17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영역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2.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셨을 것이다. 피조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죄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권위만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다. 주님만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리스도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충분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프레임의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 율법을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복음도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1.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죄인이다
2. 그래서 권위만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다
3. 십자가가 충분한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다
4.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5. 율법을 주신 분이 복음도 주신다

> **로마서 3:23**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
>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요한일서 3:4**
> 죄는 불법이다. 죄는 주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다
>
>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 **로마서 5:8**
>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복음의 내용
>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로마서 4:19**
>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형편을 알고도 약속을 믿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댄다(4:18-21 문맥)
>
>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요한복음 5:24**
>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3-1. 성경의 저자 그리스도 ①: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질문이 바뀐다.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확실하게 용서를 약속하는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찾지 못하면 주님의 요구도 구세주의 용서도 알 수 없고, 결국 주님도 구세주도 갖지 못한다. 프레임은 먼저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를 살핀다. 이들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다른 모든 주장보다 앞서고, 삶 전체를 다스리는 말씀을 내놓지 못한다고 그는 판단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분명하게 전해 줄 말씀도 내놓지 못한다고 본다. 다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밀하게 따로 말씀하신다는 제안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이나 내 마음의 상상과 구별할 잣대가 없다는 것이 프레임의 지적이다.

1. 절대적 요구와 확실한 약속이 기록된 곳이 필요하다
2. 그 말씀이 없으면 주님도 구세주도 없다
3. 자유주의·신정통주의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4. 개인 계시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다
5. 하나님 음성과 내 상상을 가를 잣대가 없다

📜 3-2. 성경의 저자 그리스도 ②: 하나님은 책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백성을 '책'으로 인도하신다. 물론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바울처럼 몇몇 사람에게는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나 대체로는 백성이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가르치셨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 하나님은 먼저 기록된 말씀(돌판)을 주셨다. 그 글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모세가 기록을 도왔지만 그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였다. 그 뒤 다른 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글을 보태 구약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을 말씀으로 인정하셨다. 행동으로도 인정하셨다. 스스로 성경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신약 교회는 구약을 하나님의 법과 약속의 기록으로 믿었다. 사도들의 글도 구약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란이

1. 하나님은 대체로 백성을 책으로 인도하신다
2. 첫 기록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다
3. 사람이 함께 썼어도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다
4. 예수님은 말씀과 삶으로 구약을 인정하셨다
5. 사도들의 글도 같은 권위로 받아들여졌다

출애굽기 24:12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출애굽 직후 '기록된 말씀'의 시작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출애굽기 31:18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증거판. 그 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16

그 판의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같은 역할

>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4:27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모세가 기록을 도왔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4:1-8

규례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키라. 기록된 말씀이 지닌 하나님의 권위

>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4]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

신명기 5:29-33

명령한 길로 행하라. 같은 역할

[29]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30]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31]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6:4-25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같은 역할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기록된 말씀의 신적 권위

시편 19장 [1]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

시편 119편

말씀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노래. 같은 역할

시편 119장 [1]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마태복음 5:17-20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하신다

[17]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5:45-47

모세의 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 권위로 묶으신다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되었다. 구약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이 쓴 것이 주의 명령이다. 사도의 글이 지닌 신적 권위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데살로니가후서 3:14

이 편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라. 사도의 글에 순종을 요구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베드로후서 3:16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둔다. 신약 글을 구약과 같은 권위로 본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속이는 자들에 맞서 배운 성경에 거하라. 혼란을 이기는 길은 기록된 말씀이다

[1]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

베드로후서 1:12-2:22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거짓 교사 경고. 신자는 혼란을 피하려고 이 글에 기댄다

[12]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15]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책으로 인도하신다.”

📜 3-3. 성경의 저자 그리스도 ③: 결론과 복음 전하기

결론은 분명하다. 그런 말씀이 없으면 주되심도 구원도 없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할 근거도 사라진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그리고 순종과 그분의 말씀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도 이어진다. 복음은 다른 모든 말보다 앞자리를 요구하는 권위의 말씀이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야 한다. 복음은 현대 철학이나 과학의 기준으로 심사받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생각을 판단할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복음을 이보다 낮춰 전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크기를 깎는 셈이 된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곧 성경의 저자이시다.

1. 말씀이 없으면 주되심도 구원도 없다
2. 성경 권위를 빼고 예수 사랑을 말할 수 없다
3.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4. 복음은 판단받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는 말이다
5. 주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저자다

> **요한복음 14:15**
>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말씀 순종은 떨어지지 않는다
>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 **요한복음 14:21**
>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같은 역할
>
>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요한복음 14:23**
>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같은 역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10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은 역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같은 역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2:48-50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이다. 복음은 판단받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는 말이다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권위적인 성경 없이 주권과 구세주되심은 무의미한 개념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숨을 불어넣듯 역사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불오성
성경이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없고, 그 말씀이 틀릴 수 없다는 성질.

무오성
성경이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성질.

성경의 필요성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와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알려면 기록된 말씀이 꼭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

주되심(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며,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청구권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 프레임은 종은 하나님께 이것이 없고, 하나님은 종에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한다.

율법과 복음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프레임은 두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라고 강조한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사람의 종교 경험 기록으로 보고, 이성과 경험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근대 신학 흐름.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로 대표되는 20세기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데오프뉴스토스)
디모데후서 3:16의 헬라어 표현을 풀어 쓴 말.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뜻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의 없이, 무엇보다 먼저, 삶 전체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다.
-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용서의 약속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 그 요구와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기록, 곧 성경에서만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
-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 없이는 그리스도의 주되심도 구원도 붙들 수 없다. 주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저자이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3편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다섯 책의 합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